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된 한국어 대응 표현 연구



201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이 나 미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된
한국어 대응 표현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이 나 미

이나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24일



주 심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윤 희 수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방법	5
2.1. 이론적 배경	5
2.1.1. 유생성	5
2.1.2. 타동성	7
2.2. 연구 방법론	11
III. 무생물 주어의 한영 번역 유형	12
3.1. 무생물주어를 가진 타동사 구문으로의 한영 번역	12
3.2.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	14
3.2.1. 유사행위자	14
3.2.2. 사건	28
3.2.3. 심리	31
3.2.4. 물질	34
3.3.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	39
3.3.1. 부사구가 주어로 변경되는 경우	39
3.3.2. 목적어가 주어로 변경되는 경우	56
3.3.3. 두 절이 하나의 절로 변경되는 경우	57
IV. 결론	63
참 고 문 헌	66

An Study On Its Corresponding Expressions in Korean to
Inanimate Subject of English Transitives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Na Mi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learners who speak Korean as a native language are not used to making English Transitives with inanimate subjects in speaking or writing. Because using inanimate subjects is limited in Korean Transitives, but not in English Transitives. In other words, Korean Transitives which have strong transitivity can have only animate subjects, but English Transitives can have both animate subjects and inanimate subjects. Because of this difference between two languages, the learners who speak Korean as a native language are more prone to use animate subjects when they are speaking or writing English Transitiv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constituents of the sentence in Korean are translated into inanimate subjects of English Transitives in the aspect of the transitivity very

closely related to the animacy, when Korean is translated into English.

For this, the original book in Korean 「엄마를 부탁해」 and its English version 「*Please Look After Mom*」 have been chosen. First of all, a total of 64 Transitives with inanimate subjects were found in the English version, and they were compared with the 64 corresponding sentences in the original book in Korean. And then, what constituents of the sentence in Korean were translated into inanimate subjects of English Transitives was analyzed. Furthermore, how those constituents were translated, depending on classifications of meanings which they signified, was analyzed as well.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ases that the subjects of the Korean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the subjects of the English sentences directly were 36 (56.3%). In Korean, the meanings of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quasi-agents", "events", "mentality", and "materials", and especially the category of the "quasi-agent" was segmentalized into 4 sections—"nature", "body parts", "diseases", and "representatives". It was found that these inanimate objects have the agentivity which leads the events and gives the causes, and sometimes have the strong animacy by implying "human". Therefore these inanimate objects were used as the subjects of the Korean sentences, and translated into the subjects of English Transitives as well.

Then, the cases that the non-subjects of the Korean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the subjects of the English sentences were 28 (78.6%). Of these, 22 (78.6%) were the most cases that adverbial phrases were translated into the subjects, just one (3.6%) was the case that the object was translated into the subject, and five(17.8%) were the cases

that two clauses were transformed into one clause.

The adverbial phrases raised to the subjects of the English translations had the meanings classified into “quasi-agents(nature, body parts, diseases, and agencies implying human-agents)”, “events”, “materials”, and “locations”. This showed that adverbial phrases had been chosen as the subjects of the English translations because of their agential roles causing events and changes. In particular, when adverbial phrases signified the locations, these locations had the possessive relation to other participants in the sentences and were apt to be translated into the subjects of the English sentences because the locations had the agentivity as the possessors. In addition, when the objects were transformed into the subjects, they meant “quasi-agents (nature)” and were translated into the subjects of English Transitives because they have the agentivity. Lastly, when two clauses were transformed into one clause, the subjects expressing “quasi-agents” were translated into the subjects of the English sentences.

As above, the inanimate objects which had the strong agentivity and animacy in the Korean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the subjects of English Transitives, and these inanimate objects were either subjects or non-subjects. Sometimes the inanimate objects located in the subjects of English Transitives were endowed with the agentivity by modifying the verbs of the Korean sentences.

Therefore If the learners, who speak Korean as a native language, use the inanimate subjects with the agentivity and the animacy in speaking or writing English Transitives, they will have a good command of English naturally.

I. 서론

한국어 타동사 구문에서는 주어를 선택함에 있어 유생성이 영향을 미친다. 영어의 타동사 구문에서는 생물(사람) 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나타내는 표현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무생물이 타동사 구문의 주어가 되는 데는 아래 예문(김은일 2000)에 서와 같이 제약이 있다.¹⁾

(1) a. He admitted all his mistakes.²⁾

b. 그는 모든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다.

(2) a. This ticket *admits* one person.

b. * 이 표는 한 사람만 입장시킨다.

위 예문(1)를 살펴보면 한국어로 옮길 때 생물(인간)주어를 그대로 주어로 번역해도 자연스럽지만 예문(2)에서는 영어 구문의 주어

1) 김은일(2000)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사람만 주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영어에서는 사람과 무생물 모두 주어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무생물주어 (inanimate subject)라 하였고, 유생성이 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부호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2) 예문에서 밑줄은 주어를, 기울임체는 동사를, 굵은체는 번역이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을 나타내며, [=Ø]는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 속 생략된 표현을 표시한 것이고 [...]은 문장 중 간략한 자료를 제시를 위해 줄인 것이다.

‘This ticket’을 그대로 주어로 옮기면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는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위 예문(2b)처럼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동사에 따라 무생물 주어를 사용한 타동사 구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령, ‘산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처럼 타동성(transitivity)³⁾이 낮은 동사는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 무생물 주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무생물이 주어 자리에 옮겨질 수 없어서 ‘-로’, ‘-때문에’ 등의 부사구로 번역되고, 문장 내부 또는 외부의 유생성이 높은 다른 문장 성분이 새로운 주어로 선택되어 번역된다(김은일 2000). 그래서 예문(2a)를 자연스러운 영어로 번역하자면, 영어의 무생물 주어인 ‘this ticket’을 ‘이 표로’라는 부사구로, 생물 목적어인 ‘one person’을 ‘한 사람이’라는 주어로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이 표로 한사람이 입장할 수 있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생성이 영한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밝힌 바 있다. 김은일 외(2009)에서는 영한 번역에서 무생물 주어를 가진 영어 타동사 구문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문을 비교 및 분석하였는데, 영한 번역에서 생물주어는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주어로 유지되는 비율이 무생물 주어에 비해 훨씬 높았고, 무생물 주어는 한국어의 특성상 타동사 구문의 주어

3) 타동성(transitivity)은 행위자성(agentivity), 피영향성(affectedness), 완료성(perfectivity)으로 결정되는데, 주어인 행위자가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시작하고, 목적어인 피동작주가 동사의 사건으로 인해 가시적인 영향을 받으며, 타동사의 사건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빠르게 변화할수록 전형적인 타동구문이며, 타동성이 높다고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의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다.

자리에 올 수 없으므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번역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영어 구문 내 유생성이 높은 생물 목적어가 한국어 구문의 주어로 되거나 또는 인간 참여자를 나타내는 소유주, 전치사가 새로운 한국어 구문의 주어로 된다는 것이다. 신애(2011), 문선희(2011)도 역시 유생성에 따른 영어 타동사 구문의 한국어 번역 유형을 분석하여 이전 연구를 증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영한 번역에서 유생성이 미치는 유형을 연구하였으므로 유생성이 한영 번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유생성과 관련한 한영 번역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는 타동사 구문에서 생물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므로 영어로 말하거나 작문을 할 때에 생물 주어를 그대로 영어의 주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학습자에게 무생물 주어를 사용한 영어 문장 표현법을 알게 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풍부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무생물 주어를 사용하여 영어 타동사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영 번역에서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통해 유생성과 타동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구문의 어떤 문장 성분이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주어가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그대로 번역되는지 아니면 다른 문장 성분이 새로운 주어로 선택되는지를 유생성과 유생성과 관련이 깊은 타동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무생

물의 의미 분류(유사행위자, 사건, 심리 등)가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연구방법을 살펴보고, 3장에서 유생성이 한영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론

2.1. 이론적 배경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생성과 타동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1. 유생성

유생성(animacy)은 생명을 가진 생물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많은 언어에서 생명의 유무, 즉 유생성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다르게 부호화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기존 연구에서 유생성이 명사 형태, 동사형태, 어순, 주어의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의미영역이 유생성에 따라 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부호화됨이 증명되었다(Comrie 1989: 9장; Croft 1990; Yamamoto 1999; 김은일 2000). 특히 한국어에서는 의미영역이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부호화되는 반면, 영어는 동일한 표현으로 부호화된다. 예를 들면, 영어의 형용사 'bright'는 사람을 수식할 때도 'bright(예, bright boy)', 무생물을 수식할 때에도 'bright(예, bright sunlight)'를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현명한 소년', '밝은 햇빛'과 같이 유생성에 따라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생성의 위계(animacy hierarchy)는 좁은 의미의 유생성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유생성까지 포함한다. Croft(1990)는 Dixon(1979)에서 발견되는 광의의 유생성 위계를 아래 (3)과 같이 세 가지 즉 인칭(person)위계, 명사구 유형(NP-type)위계와 진정한 의미의 유생성 위계로 세분화하였다.

(3) 유생성 위계

- a. 인칭 위계 : 1, 2인칭 > 3인칭
- b. 명사구 유형 위계 : 대명사 > 고유명사 > 보통명사
- c. 유생성 위계 : 인간 > 비인간 생물 > 무생물

본 연구에서는 (3c)의 진정한 의미의 유생성 위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인칭이나 명사구 위계가 아닌 생명의 유무로 인해 발생하는 문법 현상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생성을 구분 짓는 경계가 언어에 따라 다른데, 사람·고등동물, 동물·식물 또는 식물·무생물의 구분이 그 경계가 되기도 한다(Comrie 1989; Croft 1990). 위 (3c)에서도 비인간 생물을 좀 더 세분화 하면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어서 유생성의 경계가 애매한데, 김은일 외(2009)에 의하면 한국어 문법에서 동물과 식물의 경계가 유생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 (4) a. 나는 철수에게/*에 물을 주었다. (인간)
b. 나는 개에게/*에 물을 주었다. (동물)
c. 나는 꽃에/*에게 물을 주었다. (식물)

d. 나는 벽에/*에게 물을 뿌렸다. (무생물)

위의 예에서 인간과 동물은 격조사 ‘에게’를 취하는 반면, 식물과 무생물은 격조사 ‘에’를 취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유생성의 문법적 경계는 동물과 식물의 사이가 되는 것을 알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물은 인간과 함께 생물에 포함시키고, 식물은 무생물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1.2. 타동성

이 절에서는 유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동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유생성은 참여자(participant)의 타고난(inherent) 의미적 자질로서 동사나 다른 참여자와는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반면, 타동성은 참여자 및 동사의 의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김은일 외 2009). Givón(1993, 2001)은 타동성의 개념을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자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5) 전형적인 타동성의 의미론적 정의

- a. 행위자성(agentivity): 전형적인 타동질의 주어는 의도적(volitional)으로 행동하는 행위자(agent)이다.
- b. 피영향성(affectedness): 전형적인 타동질의 직접목적어는 구체적(concrete)이고 가시적으로(visibly) 영향을 받은(affected) 피동작주(patient)이다.

- c. 완료성(perfectivity): 전형적인 타동사는 실시간으로 발생한,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하고(bounded), 종결되고(terminated), 빠르게 변화하는(fast changing) 것을 부호화 한다.

여기서 주어의 행위자성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자가 전형적인 타동 구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며, 목적어의 피영향성은 행위자의 행동을 통해 피동작주가 가시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동사의 완료성은 동사가 표현하는 행동(사건)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며 대상에 대해 완전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타동 구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피동작주는 동사의 사건에 의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으며, 동사의 사건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여야 한다.

더(more) 전형적인 즉, 타동성이 높은 타동사 구문과 덜(less) 전형적인 즉 타동성이 낮은 타동사 구문을⁴⁾ 아래의 예를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자.

- (6) a. John broke the window.
b. John saw the window.

위 (6a)는 행위자(즉, John)가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시작하고, 피동

4) 여기에서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에 입각해서 ‘전형적인/비전형적인’과 같은 이분법적 표현 대신에 ‘더(more)/덜(less)’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김은일 외 2009).

작주(즉, the window)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으며, 동사(즉, break)가 표현하는 행위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빠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위(6a)는 타동성이 높은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6b)는 행위자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고, 피동작주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동사(즉, see)가 표현하는 행위가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므로 타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Cruse(1973)은 행위자성을 좀 더 세분화 하고 있다. 행위자의 특성으로 의도성 외에도 행위자가 사건을 주도하거나, 자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주장을 반영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힘으로 사건을 주도하는 경우도 행위자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김은일 외(2009)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인간은 의지를 갖고 사건을 주도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전형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지만 바람, 태양과 같은 무생물도 비록 의도는 없으나 에너지를 지니고 사건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덜(less)하지만 다른 무생물 보다 행위자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덜 전형적인 행위자성을 가진 또다른 예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 (7) a. John overturned the dustbin.
b. The wind overturned the dustbin.

김명애(2002)에 의하면 위 예문 (7)에서 ‘John’과 ‘the wind’은 똑같은 쓰레기 통을 뒤집는 일을 하는 행위자(agent)이지만 행동의 의지

를 가진 ‘John’이 더 전형적인 행위자가 된다. ‘the wind’는 무생물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여 사건을 야기하므로 다른 무생물보다는 더(more)하고 인간보다는 덜(less)한 행위자성을 가졌다.

또한 행위자성은 유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위자가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시작할수록 전형적인 행위자이므로 행동에 대한 의지를 인식하는 존재 즉 인간과 같이 유생성이 높은 존재가 행위자인 주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⁵⁾

그런데,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는 전형적인 타동사와 함께 유생성이 높은 행위자가 아닌 무생물을 행위자로 허용하고 있다.

(8) a. The hammer smashed the window.

b. (누가) 망치로 창문을 깨뜨렸다. (김신영 2002)

c. * 그 망치는 창문을 깨뜨렸다.

위 (8a)에서 도구인 망치(the hammer)는 무생물이고, 특히 의도를 가진 행위자가 아니므로 행위자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망치’로 인해 창문이 깨지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망치’를 행위자로서 주어자리에 위치시켰다. 다시 말해서 망치(the hammer)를 수단으로 이용한 실제 행위자가 있으나 영어에서는 이런 구체화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제거하기 위해 도구를 행위에 책임을 가지는 존재 즉 행위자로서 사용한 것이다(김신영 2002,

5) Yamamoto(1999: 60)는 Hinds(1983)을 인용하여 생물이 주어/절 주제(clausal topic)로, 무생물은 직접 목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한다(김은일 2000).

Givón 1993).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무생물인 도구가 행위자성이 낮으므로 타동성이 높은 타동사 구문의 주어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제한하여 영어의 주어를 부사격 조사 ‘-로’를 붙여 부사구로 나타내었고 생략된 유생성이 높은 행위자를 주어로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생성과 타동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2.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영 병렬 언어자료는 한글 원서인 신경숙(2008)의 「엄마를 부탁해」(이하 ‘엄마’로 약함)와 영문 번역서인 김지영(역)(2011)의 *Please Look After Mom*(이하 ‘Mom’로 약함)이다. 먼저 영어 번역서에서 무생물 주어가 사용된 타동사 구문 64개를 발견하였다. 그런 다음 이 영어 문장 64개에 대응하는 한국어 원서의 문장 64개를 발췌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64개의 한국어 구문을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로 크게 분류하고, 변경되는 경우는 한국어 문장의 어떤 문장성분이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고 그런 후 무생물의 의미에 따라 문장을 분류하여 유생성 및 타동성이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Ⅲ. 무생물 주어로의 한영 번역 유형

본 장에서는 한국어에서 어떤 문장 성분이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되는지를 유생성과 타동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되는 한국어의 표현이 그 의미 분류에 따라 어떻게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3.1. 무생물주어를 가진 타동사 구문으로의 한영 번역

신경숙(2008)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 번역서인 김지영(역)(2011)의 *Please Look After Mom*에서 무생물 주어가 사용된 타동사 구문 총 64개가 발견되었다. 그런 후 이 영어 문장 64개로 번역된 한국어 원서의 해당 문장 64개를 발췌하여 비교하였다. 이들 한국어 구문 64개의 주어가 영어로 번역시 주어가 유지되는지 또는 변경되는지를 비교해본 결과, 아래의 [표1]과 같았다.

[표1] 한영번역에서 주어 유지/변경 비교

구분	주어 유지	주어 변경	계
빈 도	36(56.3%)	28(43.7%)	64(100%)

[표1]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어 구문에서 주어가 영어 번역문에서 무생물 주어로 유지된 경우(56.3%)가 비주어가 무생물 주어로 번역된 경우(43.7%)보다 많았다. 주어가 유지되는 한국어 문장 36개 중 35개가 무생물 주어 구문이었으며 1개는 생물 주어 구문이었는데, 이 생물 주어 구문의 주어인 ‘사서’가 영어 번역문에서는 무생물인 ‘도서관’으로 번역된 사실이 흥미롭다.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는 한국어 문장 28개 중 22개가 무생물 주어 구문이고, 6개가 생물 주어 구문이었으며, 또 이 28개 중 부사구가 주어로 변경된 경우가 22개(78.6%)로 가장 많았고 목적어가 주어로 변경된 경우가 1개(3.6%), 두절이 하나의 절로 변경되면서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가 5개(17.8%)가 있었다. 여기서는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되는 한국어 문장이 주어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변경하는지 그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서 영어의 무생물 주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의 의미 즉 무생물의 의미분류(유사행위자, 사건, 심리 등)에 따라 유생성과 타동성이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된 경우가 36개(56.3%)가 있었으며, 이러한 한국어 주어를 의미에 따라 크게 분류하면 유사행위자, 사건, 심리상태, 물질이 있다. 이 의미 분류에 따라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3.2.1. 유사행위자

한국어 구문을 영어로 번역 시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인 36개 구문 중 주어가 유사행위자인 경우가 20개(55.6%)로 가장 많았다. 비록 무생물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피동작주에 영향을 끼치며 사건을 야기하는 행위자의 역할을 하므로 유사행위자로 구분되는 것이다. 유사행위자에는 자연 뿐만 아니라 신체일부, 질병, 기관을 대표하는 인간이 발견되었다.

A. 자연

주어가 자연인 경우는 6개 문장이 있었는데, 아래 예문처럼 모두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되었다.

- (9) a. 바닷바람이 그 부엌문을 얼마나 여닫았는지 나무문이 받은 부서져 있습니다. (엄마, p.224)

- b. The ocean wind *had banged the wooden door* open and shut so many times that it was half shattered. (Mom, p.187)

위 예문(9)에서 한국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는 무생물인 자연이다. 김은일 외(2009)에 의하면 바람(the ocean wind), 태양 등과 같은 자연은 의도성은 없지만 에너지를 지니고 사건을 주도할 수 있으므로 다른 무생물보다 행위자성이 더 높아 타동문의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위 예문에서 비록 자연은 무생물이지만 인간 행위자 보다는 덜 전형적인 행위자의 역할을 하므로 한국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바닷바람)로 허용되었고, 영어 번역문에도 주어(the ocean wind)로 유지되었다.

다음은 위 예문 (9)와 같이 주어가 자연 중이나 먼지인 경우이다.

- (10) a. 자꾸만 먼지가 폴썩여 당신과 짐자전거를 가리는 것을 손으로 눈을 비벼가며 보았네. (엄마, p.228)
- b. Dust rose and *clouded you and your bicycle*, so I rubbed my eyes and watched you get smaller. (Mom, p.190)

위 예문(10a)에서 주어 ‘먼지’는 의도는 없으나 공기의 유동에 의해

6) 먼지(dust) : 모래보다 작은 입자의 고체물질을 말한다. 공중에 부유(浮遊)하며,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 지표면에 퇴적되며, 화산재, 황사 등도 먼지의 일종으로 자연의 일부로 본다. (www.naver.com/백과사전)

공중에 부유하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먼지’는 스스로 움직임에 따라 행위자성이 있어서 한국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에 위치하였는데, (10b)의 영어 번역문에서도 동사 ‘cloud’를 사용하여 ‘dust’가 구름이 끼듯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면서 행위자로서 주어 자리에 나타났다. 자연은 덜 전형적인 행위자로서 타동사 구문의 주어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한영 번역시 주어가 유지될 수 있었다.

다음 예문(11)과 (12)은 자연이 식물인 경우이다.

- (11) a. 살색 꽃이 피는 장미넝쿨들은 환호를 내지르며 가시를 돋우곤했다. (엄마, p.245)
- b. The rose vines with pale-pink buds *will flex* their spikes, cheering. (Mom, p.205)

위 (11a)에서 식물(장미넝쿨)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시가 형성된다. 따라서 식물 자체는 의도하지 않으나 에너지를 가지고 가시를 만들어 내므로 행위자성이 있어서 무생물인 식물이 한국어 구문의 주어에 사용되었고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도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 (12) a. 길을 타고 오는 나무 줄기들이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엄마, p.58)
- b. Sometimes the branches that reached into the trail *hit your face*. (Mom, p.44)

위 예문(12)도 식물(나무줄기들)은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 나무줄기가 휘어지면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즉 탄성위치에너지⁷⁾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나무줄기의 진동이 마치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예문에서도 자연인 ‘나무줄기들’이 의지는 없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을 유발하므로 행위자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예문(12a)에서는 무생물이 한국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에 위치할 수 있었고, 영어 번역문에서도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주어가 자연이고 한국어의 자동사 구문이 영어의 타동사 구문으로 변경된 경우이다.

(13) a. 막 기울기 시작한 가을볏이 서향집 마당에 가득 차 있었다.

(엄마, p.29)

b. The setting autumn sunlight *filled* the yard of the **house**, which faced west. (Mom, p.19)

위 예문(13a)에서 에너지를 가진 가을 햇빛이 마당을 비추어 밝게 만드므로써 행위자 역할을 하여 (13b)의 영어 번역문에서 행위자로서 주어 자리에 위치하였고, 한국어 구문의 부사어인 ‘마당에’가 영향을 받는 피동작주로 선택됨으로써 목적어로 나타나 구문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7) ‘탄성위치에너지’의 의미 : 용수철에 힘을 가하면 용수철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갖는다. 이와 같은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탄성위치에너지 즉, 탄성에너지라고 한다. (www.naver.com/백과사전)

이밖에도 다음 (14)와 같이 자연에 의해 실제 사건이 유발되지 않으나 은유적으로 자연을 행위자로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 (14) a. 지금은 집 혼자 남았네. 인기척은 없고 흰눈만 마당을 지키고 있네. (엄마, p.238)
- b. There's nobody here, and only the white snow is *guarding* the yard. (Mom, p.198)

위 (14)에서는 무생물 주어인 자연이 (14b)와 같이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B. 신체일부

신체의 일부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조종을 하므로 인간행위자를 암시한다. 신체일부를 무생물 주어로 사용한 경우가 12개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다음 예들과 같이 영어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주어로 유지되었다.

- (15) a. 당신이 죽은 뒤에 아내의 손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눈을 쓸어주고,... (엄마, p.169)
- b. You hoped that, after you died, your wife's hands *would close* your eyes one last time,... (Mom, p.140)

- (16) a. 서양인 관광객들 틈에 잃어버린 엄마가 있을 리 만무하건

만 지금도 너의 눈은 한곳에 정지할 줄을 모른다. (엄마, p.276)

- b. There's no way Mom would be among Western tourists, but even now your eyes *don't know* how to settle on a single object. (Mom, p.232)

(17) a. 한여름 오후에 전해진 다급한 동생의 목소리는 [...] 그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다. (엄마, p.84)

- b. His younger brother's urgent voice on a midsummer afternoon *created* a fissure in his daily life,... (Mom, p.66)

(18) a. 아내의 손은 무엇이든 다 살려내는 기술을 가졌다. (엄마, p.160)

- b. Your wife's hands *could nurture* any life. (Mom, p.133)

위의 예문(15a)의 '손', (16a)의 '눈', (17a)의 '목소리', (18a)의 '손'은 신체의 일부로 인간에 의해 조종이 된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가 마치 인간처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이 의인화되어 표현되었다. 따라서 인간 행위자를 암시함에 따라 유생성이 높고 행위자성 역시 높아지므로 한국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 자리에 위치하였고, (15b), (16b), (17b), (18b)에서와 같이 영어 번역문에서도 주어로 유지되었다.

다음의 (19) ~ (26)의 예문들도 무생물 주어가 신체일부를 의미하는 경우인데, 앞의 예문(15) ~ (18)과 달리 한국어의 자동사 문장

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 (19) a. 네가 그의 어머니를 모독했다고 그의 표정이 [=ø (너에게)]
 말하고 있었다. (엄마, p.77)
- b. ...but his expression *tells you* that you've insulted his
 mother. (Mom, p.60)

위 예문(19a)에서 ‘표정’은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인간의 몸이나 모습에 보여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표정’은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표정’ 역시 표정을 지으며 그런 표정을 통제하는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어 구문에서 주어에 위치하였고 (19b)와 같이 영어번역문에서도 주어로 유지되면서 한국어 구문의 생략된 부사구 ‘너에게’가 영어의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다음 예문 (20) ~ (23)은 위 예문 (19)와 같이 한국어 문장의 주어가 신체 일부이고 한국어의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었으나, 신체 일부가 가진 자질에 의한 변화를 강조한 경우이었다.

- (20) a. 그가 멋지다고 하자 엄마의 얼굴에 함박 웃음이 *피어났다.*
 (엄마, p.117)
- b. When he said they looked wonderful, a big smile
 brightened Mom's face. (Mom, p.95)

위 예문(20a)에서 ‘함빡 웃음’은 앞선 (19a)와 같이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으로서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웃음’ 역시 표정을 짓는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높아 한국어와 영어의 주어로 위치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 예문(20a)에서 신체의 일부라면 부사구인 ‘엄마의 얼굴에’가 주어로 선택되어 ‘Her face brightened up (at his word)’ 또는 ‘She had bloomed’ 인 자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장 (20a)에서 서술어 ‘피어나다’는 ‘파리하던 얼굴에 화색이 돌다(동아 새국어 사전 제 5판)’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는 ‘웃음이 돌다’ 즉 웃음 자체 자질이나 특성에 의해 얼굴 전반에 변화를 야기함을 말하고 있다. 즉, 웃음 자질이 변화의 원인 제공원으로서 ‘웃음’에 행위자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함빡 웃음’이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서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 자리에 나타나고, 동사가 자동사 ‘bloom’이 아닌 타동사 ‘brighten’으로 변경되면서, 영향을 받는 엄마의 얼굴이 피동작주로서 목적어 자리에 나타났다.

(21) a. [=ø (눈에)] 눈물이 펴 돌았소. (엄마, p.225)

b. Tears filled my eyes. (Mom, p.190)

위 예문(21a)에서 ‘눈물’은 신체일부인 눈물샘에서 생성되어 눈을 통해 얼굴에 드러난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눈물’은 눈물을 흘리는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이 높다. 그런데 (21a) 서술어 ‘돌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른거리며 나타나다’이다 (동아 새국어 사전 제 5판). 이는 인간의 의지보다 ‘눈물’이 가진

자질에 의해 ‘돌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예문(21a)은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나 인간의 통제력보다 저절로 고이는 눈물의 자질에 의해 눈(eyes)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눈물’은 그 자질에 의해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로서 영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에 위치하며, 동사가 자동사인 ‘well up’ 혹은 ‘circle’이 아닌 타동사 ‘fill’이 선택되면서 영향을 받은 눈이 한국어 문장에서는 생략되었으나 번역문에서 목적어 자리에 나타났다.

(22) a. 너의 입에서 깊은 숨이 새어나왔다. (엄마, p.281)

b. Deep sighs escape your lips. (Mom, p.236)

위 예문(22a)에서 ‘숨’은 인간이 호흡작용에 의해 입을 통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로서,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숨’은 호흡하는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이 높다. 그런데 (22a) 서술어 ‘새어나오다’는 ‘지붕에 물이 새어 나오다’처럼 공기의 운동 즉 기체 자체의 성질에 의한 움직임 을 강조하는 동사이므로 ‘숨’은 그 자질에 의해 사건을 야기하는 행위자의 역할을 하여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나타났다. 또한 동사가 자동사 ‘leak’ 혹은 ‘vent’가 아닌 타동사 ‘escape’가 선택되면서 ‘숨’에 공간을 빠져나오는 능동적인 행위자적 움직임을 부여하였고, 그 움직임을 결과로써 영향을 받게 된 부사구 ‘입술’이 피동작주로서 영어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로 선택되었다.

(23) a.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엄마, p.31)

b. ...beads of sweat *dotted* **her forehead**. (Mom, p.21)

위 예문(23a)에서 ‘땀방울’은 인간의 체온이 상승할 때 체온 유지를 위해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 땀샘에서 생성되어 피부로 배출되므로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땀방울’은 땀을 흘리는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이 비교적 높다. 그런데 (23a)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다’와 같이 나무에 열매가 성장해 붙어 있는 것처럼, 생성된 땀이 땀 자체 성질에 의해 스스로 모여 방울모양을 이루어 피부에 붙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땀방울’은 그 자질에 의해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신체의 일부로 유생성도 높으므로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에 위치하고 영어 번역문에서도 주어로 유지되었다. 또한 자동사 ‘bear’가 아닌 타동사 ‘dot’⁸⁾를 선택함으로써 동사 변경과 함께 ‘땀방울’의 행위자성이 강조되고 이에 영향을 받은 부사구 ‘이따’가 영어에서는 피동작주로서 목적어로 선택되어 번역되었다.

다음 (24) ~ (25)는 (19) ~ (23)의 예문과 같이 주어가 신체일부이고 한국어의 자동사 구문이 영어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되었으나 한국어 문장이 이중 주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24) a. 성악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지 칠년이 되었다는 가이드의
눈과 너의 눈이 마주쳤다. (엄마, p.277)

b. Your eyes *meet* **the eyes of the guide**, who'd said that

8) ‘dot’의 사전적 의미 : When things dot a place or an area, they are scattered or spread all over it.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he came here seven years ago to study choral music.
(Mom, p.232)

위 예문(24a)에서 ‘너의 눈’은 신체의 일부로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
다가 가이드의 눈을 보며 정지하였으므로 인간에 의해 조종되며, 인
간행위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이 높다. 또한 선행 문맥에서 ‘너의
눈’이 자주 등장하였으므로 ‘가이드의 눈’보다도 주제적이다. 따라서
영어 번역문인 (24b)에서 주어로 선택되었고, 이 ‘너의 눈’에 의해
마주침을 당한 ‘가이드의 눈’이 피동작주로서 영어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로 선택되어 번역되었다.

- (25) a. 그중의 한 수녀와 너의 눈이 마주쳤다. (엄마, p.278)
b. Your eyes meet those of one particular nun. (Mom,
p.233)

위 예문(25a)에서 ‘너의 눈’은 신체의 일부로 눈동자의 움직이는 인
간행위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이 높다. 그리고 선행 문맥에서 ‘너의
눈’이 주제적이므로 영어 번역시 주어로 선택되었고, 한국어 구문의
공동 주어인 ‘한 수녀의 눈’은 주도적인 ‘너의 눈’의 움직임에 의해
마주침을 당한 피동작주로 영어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로 번역되었
다.

이밖에도 한국어 문장의 주어가 신체의 일부로 양상동사(Modality
Verb)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26) a. 한순간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네. (엄마, p.228)

b. Suddenly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Mom, p.290)

위 예문 (26a)에서 주어진 ‘가슴’은 신체의 일부로 심장이 뛰는 것을 의식하는 인간을 암시하므로 유생성이 높다. 그런데 심장이 뛰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보다 맥박이 뛰고 피가 몸속에 흐르는 것처럼 심장 스스로의 움직임 때문이다. 따라서 심장에 행위자성이 있으므로 한국어 구문에서도 주어로 위치되었고, 영어로 번역시 주어로 선택되었다. 한편 영어 번역시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동사 ‘start’를 새로 삽입하면서 한국어 구문의 서술어 ‘뛰었네’가 영어 번역문에서는 명사화되어 목적어로 나타났다.

C. 질병

한국어 문장의 무생물 주어가 질병의 의미하는 경우가 1개 있었다. 질병 역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졌으므로 유사 행위자로 구분되었다.

(27) a. 두통은 엄마의 그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갔다. (엄마, p.75)

b. Mom's headaches stole **the smiles** from her face. (Mom, p.59)

위 예문(27)에서 주어 ‘두통’은 인간의 머리가 아픈 증상인데,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증세이므로 유생성이 높다. 또한 ‘두통’은 고통을

수반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인간에게 가시적인 변화를 초래하므로 사건을 야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통’은 인간 행위자보다는 전형적이지 않지만 행위자의 역할을 하고, 유생성 역시 높으므로 한국어 구문의 주어에 위치하였고, 영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 자리를 유지하여 번역되었다.

D. 기관을 대표하는 인간

한국어 문장의 무생물 주어가 특정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인 경우가 1개 있었다. 이런 경우 생물인 사람이 무생물인 기관으로 대체되어 번역되었다.

- (28) a. 너는 엄마에게 이른 아침에 P시의 점자도서관에 강연을 하러 갔었다고 말했다. 점자도서관? 엄마가 물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손으로 짚어가며 읽는 글자, 그게 점자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 몇 해 점자도서관의 사서는 네가 와주길 청했지만...

(엄마, p.39)

- b. You told Mom that in the early morning you had gone to lecture at **a Braille library** in Pohang. “**A Braille library?**” Mom asked. “Braille is what the blind read with their fingers.” Mom nodded [...] For a few years, the Braille library *had been asking* you to visit, but,...

(Mom, p27)

앞서 언급한 예문들 (9) ~ (27)은 주어가 무생물이었지만 위 (28a)는 생물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그래서 (28a)의 주어 ‘사서’는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매우 높아 한국어와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28b)를 보면 한국어 문장의 ‘사서’가 인간인 ‘librarian’이 아닌 사서가 근무하는 기관인 ‘the Braille library(점자도서관)’로 번역되었다. 이는 한국어 구문에서 주어인 ‘사서’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즉, 점자도서관의 A인물이던 B인물이던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요청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자도서관’이라는 특정한 기관에서 요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 선후행 문맥에서도 점자도서관이 자주 언급되어 ‘사서’보다 ‘점자도서관’이 더 주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8a)에서 ‘사서’는 ‘점자도서관’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지녔기에 ‘the Braille library(점자도서관)’으로 대체되어 번역되었다.

한편 점자도서관은 점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 즉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므로 (28a)의 한국어 구문의 주어인 ‘사서’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구문에서 주어가 기관을 대표하는 인간인 경우, 그 인간을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는 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또한 그 기관은 유생성이 높아 한국어 구문의 주어로도 위치할 수 있으므로 영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⁹⁾

9) 김은일 외(2009)에 따르면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가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는 기관인 경우, 기관은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생성이 높아 한국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위 예문(28)과 같이 한영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기관으로 대체될 수 있었던 것도 기관이 인간행위자를 암시하기 때문이며, 기관의 유생성이 높아 주어 자리를 유지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자연, 신체일부, 질병, 기관을 대표하는 인간과 같은 유사행위자인 경우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가 유지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사건이 한영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3.2.2. 사건

한국어 구문을 영어로 번역 시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인 36개 구문 중 주어가 사건인 경우가 4개가 있었다. 다음 예문(29)와 (30)은 무생물 주어가 사건인데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29) a. 엄마의 실종은 그가 까마득히 잊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 속의 일들을 죄다 불러 들였다. (엄마, p.120)
- b. Mom's disappearance was *triggering* events in his memory, moments, like the maple-leaf doors, he thought he'd forgotten about. (Mom, p.98)

위 예문 (29a)에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 ‘엄마의 실종’은 인간에게 발생한 사건(event)으로 사건 자체가 의도적으로 동사(불러들이다)가 표현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사건이 인간에게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사건은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자의 역

할을 한다. 따라서 ‘엄마의 실종’이 행위자로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에 위치하였고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되었으며,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불러들이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상(기억 속의 일들)이 피동작주인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30) a. 아내의 실종이 누님에게 다시 담배를 피우게 한 모양이었다.
다. (엄마, p.179)

b. Your wife's disappearance must have pushed your sister to take up smoking again. (Mom, p.149)

위 예문 (30a)에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 ‘아내의 실종’ 역시 사건(event)으로 사건 자체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인간(누님)에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므로써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내의 실종’이 행위자로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에 위치하였고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되었으며, 동사가 BE 동사인 ‘-이다’에서 일반 타동사인 ‘push’로 변경되면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누님’이 피동작주인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다음 문장(31)은 위와 같은 사건이 영향을 끼는 경우이나 그 영향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

(31) a. 어쩌면 그 일들이 지나온 세월의 어느 갈피에 스며 있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일까? (엄마, p.236)

b. Did those events seep into a page of the past and bring us all the way here? (Mom, p.196)

위 예문 (31a)에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 ‘그 일들’은 인간에게 발생한 사건들(event)을 의미하는데, 사건 자체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며, 사건이 인간을 실제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닌 단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예문도 사건이 인간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일들’이 행위자로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에 위치하였고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되었으며, 영향을 받은 대상(우리들)이 피동작주인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위 (29) ~ (30)과 같이 한국어 구문의 무생물 주어가 사건인 경우이나 특정한 단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 문장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32) a. 네가 엄마를 생각하며 혼자 웃을 때가 있는데, 그날의 엄마, 늙은 엄마가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오빠! 외치며 마루를 뛰어내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간의 외삼촌에게 달려가던 그 모습이 연상될 때이다. 그때의 엄마는 너보다도 더 어린 소녀였다. 엄마의 그 모습은 너의 뇌리에 박혔다. 엄마에게도……라는 상상을 하게 했다. (엄마, p.36)

b. Sometimes you laughed to yourself when you remembered what your mom was like that day, your aging mom jumping down from the porch and running across the yard to your uncle, shouting “Brother!” as if she was child—Mom acting like a girl even younger than you. *It made* you think, even Mom... (Mom, p.25)

위 예문(32a)에서도 앞 문장 ‘네가 [...] 박혔다’가 언급하는 사건이 인간(너)에게 엄마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선행 문장을 의미하는 사건이 행위자의 역할을 하며 한국어 구문에서 생략되었지만 영어 번역문에서 ‘it’으로 나타나 주어 자리를 유지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사건인 경우 의지는 없으나 피동작주에 변화를 초래하여 행위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3.2.3. 심리

한국어 구문을 영어로 번역 시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인 36개 구문 중 주어가 심리인 경우가 3개 있었다.

- (33) a. 그리 몰아붙여놓고 제대로 풀어주지도 않은 채 함구해온 세월. 그 억압이 아내를 고통으로 내몰았는지도 모른다. (엄마, p.192)
- b. The years of silence, after you had blamed it on her and didn't even let her talk about it—that pressure *might have pushed* your wife toward her pain. (Mom, p.160)

위 예문(33)에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 ‘그 억압’은 인간의 의식에 불

꽤한 기억을 가두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인간과 같은 생물이 가진 고유의 능력이므로 유생성이 높고 이것이 인간에게 가시적이던 비가시적이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성 역시 높아 한국어 구문의 주어에 위치할 수 있었고, 영어 번역문에서도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34) a. 그 충격이 확인해보기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독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절망이 **당신의 뇌**를 후려치고 지나갔다. (엄마, p.167)

b. Before you could examine the source of that feeling, something, despair that you had committed a grievous mistake that you couldn't go back on, *punched your soul*. (Mom, p.138)

위 예문(34a)에서 주어 '절망'은 모든 기대를 다 버린 정신 상태로서 인간과 같은 유생성이 높은 생물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따라서 유생성이 높고 '절망'이 인간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하므로 비록 가시적이지 않으나 행위자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주어에 위치하였고, 영어 번역문에서도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더욱이 (34a)의 목적어 '당신의 뇌'가 영어 번역문에서 'your soul' 즉 '당신의 영혼'으로 번역되면서 한국어에서는 단순히 '뇌'라고 가리킨 것이 영어에서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정신 상태의 표현인 '혼'으로 대체하여 번역함으로써 인간을 부각시켰다.

다음은 위와 같이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심리를 나타낸 경우로서

앞선 예문 (33), (34)가 한국어가 타동사 구문이라면 아래 예문 (35)는 자동사 구문인 경우이다.

- (35) a. 보이지 않는 어떤 음흉한 것이 엄마의 머리를 찍어내리고
있지 않음에야 지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엄마, p.31)
- b. Only some invisible malevolence could cause an
expression like that. (Mom, p.21)

위 예문(35a)에서 주어 ‘보이지 않는 어떤 음흉한 것’은 인간이 음침하고 흉악한 것을 마음으로 느낀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인간이 느낀 고유한 감정이므로 유생성과 관련이 깊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음흉한 것’이 한국어 구문의 주어에 위치하였고, BE-동사인 ‘-이다’가 ‘cause’로 변경되면서 한국어 주어의 ‘음흉한 것’은 표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유생성이 높고 행위자성이 있는 ‘음흉한 것’이 영어번역문의 주어로 유지되었고, 한국어 구문의 보어인 ‘표정’이 영향을 받는 피동작주로서 영어 번역문의 목적어로 위치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심리인 경우 인간이 가진 고유한 감정으로 유생성이 높고 인간에 고통 등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자성이 있어서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물질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2.4. 물질

한국어 구문을 영어로 번역 시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인 36개 구문 중 주어가 물질인 경우가 9개 있었으며 이중 3개는 다음 예와 같이 한국어 문장이 타동사인 경우이다.

- (36) a. 밍크가 내 늙은 얼굴을 포근히 감싸주었재. (엄마, p.243)
b. The *mink*, like a spring breeze, gently *embraced* my old face. (Mom, p.203)

위 예문(36a)에서 동사 ‘감싸주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 않으며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피동작주에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김은일(2000), 김은일 외(2009)에서는 이와 같이 타동성이 낮은 경우 한국어 타동사 구문에 무생물 주어가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무생물 주어가 한국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위치하였고, 동사의 변화 없이 영어 번역문에서도 무생물 주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¹⁰⁾

- (37) a.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고 뒤꼍으로 난 방문으로 대나무 그림자가 비쳐들고 있었다. (엄마, p.154)
b. The clock on the wall shows **that it is 3 p.m.**, and the

10) 김은일(2000)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도 동사에 따라 무생물 주어 구문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산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에서 동사 ‘에워싸다’는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하지않고 빠르게 변화하지 않아 타동성이 낮은 문장이다. 이런 한국어에서는 타동성이 낮은 동사를 사용한 경우 무생물 주어를 허용한다.

shadows of bamboos lean into the room, which faces the back yard. (Mom, p.127)

위 예문(37a)을 살펴보면 동사 ‘가리키다’는 행위의 주체는 ‘벽시계’가 아니라 사실상 벽시계 내부에 있는 ‘시계 바늘’이다. 따라서 (37a)에서 주어인 ‘벽시계’는 ‘시계 그 자체’가 아닌 ‘시계 바늘’을 의미한다. ‘시계 바늘’은 무생물로서 의지는 지닐 수 없으나, 건전지 혹은 태엽을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시계 바늘이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행위를 하므로 인간보다는 덜 전형적이지만 행위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타동사 구문의 주어자리를 유지하며 번역되었다. 또한 (37b)에서는 주어가 ‘시계 바늘’보다 ‘시계 자체’를 의미하여, 시계바늘이 아닌 시계 전체가 시각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사가 ‘가리키다’를 의미하는 ‘point’ 혹은 ‘indicate’로 번역되지 않고 ‘show’를 선택하였다.

- (38) a. 쟁기질을 해주고 얻어먹은 술의 힘이 당신을 거기까지 가게 한 것이었다. (엄마, p.183)
- b. It was the rice wine that *had brought* you there, the makgoli you had been given after you helped a neighbor plow his fields. (Mom, p.152)

위 예문(38a)에서 주어인 ‘술의 힘’ 즉 ‘술’은 무생물로서 의지는 지닐 수 없으나 사건을 일으키고 목적어인 인간에게 변화를 초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술’이라는 무생물에 ‘힘’을 더하여 술이

에너지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술의 힘’은 행위자성이 높아 타동사 구문의 주어자리를 유지하면서 번역되었으며, ‘술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당신(you)’가 피동작주로서 목적어 자리를 유지하면서 번역되었다.

위와 같이 무생물 주어가 물질로서 유지되어 번역되었지만 한국어의 자동사 문장이 영어의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된 경우가 다음과 같이 6개 있었다.

(39) a. 다른 옷장이 피부에 닿으면,... (엄마, p.76)

b. When other fabrics *touched* his skin,... (Mom, p.12)

위 예문 (39)에서 동사 ‘닿다(touch)’는 사건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며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38)과 같이 (39)는 타동성이 낮으며 동사가 변경되지 않고 부사구(피부에)가 목적어로 선택되어 번역됨에 따라 주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음에도 타동성이 낮아 주어가 유지된 경우이다.

(40) a. 아무래도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과 닮아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p.252)

b. I do think that a house *starts resembling* the people who live there. (Mom, p.211)

위 예문(40a)에서 동사 ‘닮아지다’는 사건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며 빠르게 변하지 않고 피동작주가 없다. 따라서 (40a)는 타동성이 매우

우 낮으며 ‘시작’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40b)에 ‘start’가 새로운 동사로 삽입되고, 한국어 구문의 동사 ‘답아지다’가 명사화되어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면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유지되었다.

(41) a. 거대한 벽화는 그동안 책 속에서 봐오던 것과는 달리 그 크기부터 압도해왔다. (엄마, p.277)

b. The sheer size of the fresco overwhelms you, so different from the way it looks in books. (Mom, p.233)

위 예문(41a)에서 동사 ‘압도하다(overwhelms)’는 심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므로 가시적인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동사의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41a)는 타동성이 매우 낮으므로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영어 번역문에서 유지되었다. 또한 (41a)의 주어 ‘거대한 벽화’와 부사구 ‘그 크기부터’가 함께 주어 자리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한국어 구문에서 주어가 물질로서 유지되어 번역되나 한국어의 자동사가 다른 의미의 동사로 변경되면서 주어가 유지된 경우이다.

(42) a. 그가 매일 지나치며 바라보던 공중 전화부스가 있던 자리엔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었다. (엄마, p.121)

b. A big box store *has* now *replaced* the telephone booth that he used to walk by every day. (Mom, p.98)

위 예문(42a)에서 동사 ‘들어서다’는 (42b)에서 ‘built’ 또는 ‘go up’

으로 번역되지 않고 ‘replace’로 변경되면서 ‘대형 마트’가 ‘공중 전화 부스’를 대체한 원인 제공원으로서 표현되었다. 따라서 ‘대형 마트’는 행위자성을 가지고 주어로 번역되었고, 영향을 받은 부사절의 ‘공중 전화부스’가 목적어로 나타나면서 한국어의 무생물 주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와 같이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변경되나 BE-동사가 일반 동사로 변경되면서 주어로 유지된 형태가 있었다.

(43) a. 다들 당신의 아내가 짓는 밥은 살찌는 밥이라고들 했다.
(엄마, p.172)

b. Everyone said that the rice your wife made *fattened* people. (Mom, p.143)

위 예문(43a)에서 BE-동사 ‘-이다’가 (43b)에서 일반동사 ‘fatten’으로 변경되면서 ‘밥’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찌는 영향을 받았으므로 ‘밥’은 전형적인 행위자성과는 거리가 있으나 동사 ‘fatten’의 원인 제공원으로서 주어로 번역되었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피동작주로서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44) a. 로마는 문명의 상징이 되는 공간이었다. (엄마, p.276)

b. Everything about Rome *symbolized* civilization. (Mom, p.232)

위 예문도 (29)와 마찬가지로 무생물 주어가 사건인데 변화를 야기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물질인 경우 물질이 힘을 가지거나 타동성이 낮거나 동사가 변경되면서 행위자 역할을 하여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 구문의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3.3.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어 구문의 비주어가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된 경우가 전체 28개(43.8%)가 있었으며, 한국어의 어떤 문장 성분이 영어의 주어로 번역되는지 그 유형과 비주어의 의미에 따라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3.3.1. 부사구가 주어로 번역되는 경우

부사구가 주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 28개 중 22개(78.6%)로 가장 많았으며, 부사구는 의미별로 유사행위자, 사건, 물질 처소로 구분하였다.

3.3.1.1. 유사행위자

유사행위자는 부사구가 주어로 번역되는 22개 중 9개(40.9%)이며, 이때 유사행위자는 자연, 신체일부, 질병, 기관인 경우가 있었다.

A. 자연

부사구가 무생물인 자연인 경우가 2개 문장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부사구가 영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번역되었다.

- (45) a. 마당의 눈이 바람에 돌돌 말려 쓸려다니네. (엄마, p.239)
b. The wind is rolling the snow in the yard and shifting it around. (Mom, p.200)

위 예문 (45a)에서 부사구 ‘바람에’는 자연이며, 앞서 예문 (9)와 같이 자연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건을 주도하므로 인간 행위자보다는 덜 전형적이지만 행위자 역할을 하므로 영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번역이 되었다. ‘바람’에 의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은 ‘마당의 눈’이 피동작주로서 영어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로 나타났다.

- (46) a. 새벽이슬이 내려 밥바구니 속 찐빵 껍질만 살짝 굳었재.
(엄마, p.240)
b. The dawn dew slightly *hardened* the outside of the steamed buns. (Mom, p.200)

위 예문 (46)에서도 부사절 ‘새벽이슬이 내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행위자 역할을 하여 영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명사화 되어 나타났고, ‘새벽 이슬’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한국어 구문의 주어 ‘검질만’이 피동작주로서 (46b)에서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B. 신체일부

부사구가 신체 일부인 경우가 4개 문장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영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번역되었다.

- (47) a. 동사무소는 **엄마 손으로** **인해** 반들반들 윤이 났다. (엄마, p.95)
b. Mom's hands **made the office** gleam. (Mom, p.76)

위의 예문 (47)에서 부사구 ‘엄마 손으로 인해’에서 ‘엄마의 손’은 신체의 일부로 인간에 의해 통제된다. 즉 인간행위자인 엄마가 동사무소를 청소함으로써 윤이 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부사구에서의 ‘엄마의 손’은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여 가시적인 사건을 야기하는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사구의 유생성이 높아지고 행위자성 역시 높아지므로 부사구가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 자리로 격상되었고, ‘엄마 손’으로 인해 가시적인 변화가 초래된 ‘동사무소’가 피동작주로 선택되어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48) a. ...침울해 있던 **엄마의 눈가에 화기가 돌았다**. (엄마, p.107)

b. Mom's gloomy eyes regained their fire. (Mom, p.85)

위 예문 (48a)에서 부사구 ‘엄마의 눈가에’에서 ‘눈가’는 신체의 일부로 인간을 암시한다. 그런데 서술어를 살펴보면 동사가 ‘돌았다’의 의미로 번역되지 않고 소유와 되찾음의 의미를 내포한 ‘regain’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화기’의 자질에 의해 눈빛이 변한 것보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됨을 강조한다. 따라서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간을 암시함에 따라 유생성이 높아지고 행위자성 역시 높아지므로 부사구가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격상되었다. 그래서 한국어의 주어인 ‘화기’는 그 의미 중 ‘기운’의 의미를 제외하고 ‘the fire’라는 구체적인 물질 명사로 표현되어 인간이 찾아온 대상물의 의미를 가지고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49) a. 웃는 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엄마, p.232)

b. A smile doesn't cost you any money. (Mom, p.193)

(49a)의 ‘웃는 데’에서 ‘데’는 ‘장소’ 또는 ‘경우’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며, 의존 명사 뒤 부사격 조사 ‘에’와 보조사 ‘는’이 생략되어 ‘웃는 데[=∅ (에는)]’는 부사구로 볼 수 있다. 웃는 것 역시 인간이 가지는 얼굴 표정의 하나로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유생성이 높아져 부사구가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 ‘a smile’로 선택되었다.

(50) a.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뭐 하러 가느냐며 여기 내려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아들을 뿌리치고 오늘 아침 기어이 기
차를 타고 이 집으로 올 때 **당신의 마음 한 켠에** 도사리고
있던 희망은 이 집에 들어서며 안에 있는가? 나 왔네! 하면
방을 닦다가, 혹은 헛간에서 채소를 다듬다가, 그도 아니라
면 부엌에서 쌀을 씻다가 인제 오요! 예의 그 목소리로 반
겨줄 것만 같았다. (엄마, p.154)

b. When you shook off your son, who vehemently
disagreed with your coming home by yourself, and you
took the morning train, a small corner of your heart
nurtured **the hope** that when you walked in and called,
“Are you here? I’m home!” your wife would greet you
as in old times—“You’re home!”—perhaps while she
cleaned the room or trimmed vegetables in the shed or
washed rice in the kitchen. (Mom, p.127)

위 예문(50)에서 살펴보면 부사구 ‘당신의 마음 한켠에’에서 ‘마음’은
인간의 몸 속에 가진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을 일으키는
인간을 암시하므로 부사구는 유생성이 높고 행위자성 역시 높아진
다. 그래서 부사구가 영어의 주어로 번역되었고, 동사 ‘nurture’¹¹⁾가
새롭게 삽입되어 번역되면서 ‘당신의 마음 한켠’은 감정을 키우는

11) ‘nurture’의 사전적 의미 : If you nurture something such as a young child or
a young plant, you care for it while it is growing and developing.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nurture) 행위를 하는 행위자성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 동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국어의 주어 ‘희망’은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C. 질병

부사구가 질병인 경우가 1개 문장이 있었는데, 인간과 같은 생물이 가진 고유한 증상으로 고통 등 변화를 일으켰다.

- (51) a. 아내가 두통으로 머리를 싸매고 혼절해 있을 때도 당신은 아내가 잠을 자는 중 이라고 여겼다. (엄마, p.150)
- b. When your wife's headaches *made* her uncouscious, you thought she was sleeping. (Mom, p.123)

위 예문(51)에서 부사구인 ‘두통으로’가 영어 번역문의 주어로 격상되었다. 질병의 일종인 ‘두통’은 인간 머리에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간만이 느끼는 고통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암시함으로써 유생성이 높고, 또한 아내를 혼절케 하는 등 변화를 일으키므로 사건의 원인 제공원으로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역동사 ‘make’가 삽입되면서 부사구인 ‘두통으로’가 영어 번역문의 주어로 번역되었고 영향을 받는 ‘아내’가 피동작주로서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D. 기관

부사구가 기관을 의미하는 경우가 2개 문장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영어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번역되었다.

(52) a. 서울의 일류대학에 합격해서, 그것도 약대에 합격해서, 네
가 다닌 여학교엔 축하플랜카드가 걸리기도 했어. (엄마,
p.218)

b. When you were accepted into a top university in Seoul,
and into the pharmacy school at that, your high school
hung a congratulatory placard in your honor. (Mom,
p.181)

위 예문(52a)에서 축하 플랜카드를 건 것은 여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일 것이다. 그래서 영어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직원을 암시하는 기관
이 주어로 나타나 'the pharmacy school'가 플랜카드를 건다고 표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구문의 부사구인 '여학교엔'이 인간 행위
자를 암시하는 기관으로서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높아져 영어 번역
문에서는 주어로 격상되었다.

(53) a. 설문조사에서도 사은품인 공연티켓이 회사의 이미지를 높
이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반응이 나왔다. (엄마, p.100)

b. A survey showed that the concert tickets heightened the
company's image. (Mom, p.80)

예문(53)도 부사구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를 실제로 한 인간 행위
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높아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
로 선택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구문의 부사구가 자연, 신체일부, 질병, 기관과 같은 유사행위자인 경우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높아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선택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사건이 한영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3.3.1.2. 사건

한국어 구문의 부사구가 사건인 경우가 다음과 같이 2개 있었다.

- (54) a. [=ø (당신은)] 왜 전화를 이제 *받*아요? 핸드폰은 왜 안 받
구? (엄마, p.193)
b. What took **you** so long to answer? Why didn't you
answer your cell? (Mom, p.161)

위 예문(54a)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 가시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사건은 한국어 구문에서 ‘무슨 까닭으로’를 의미하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구 ‘왜’로 표현되었는데, 이 부사구가 원인 제공원으로 행위자의 역할을 하므로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격상되어 ‘what’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받은 피동작주 ‘당신’은 한국어 문장에서는 생략되었으나 영어 번역문에서 목적어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위와 같이 부사구가 사건인데 한국어 문장의 BE-동사가

영어의 타동사로 변경된 경우가 다음 예문 (55)와 같이 있었다.

(55) a. 그런다고 될 방도가 있냐. (엄마, p.136)

b. But fighting *doesn't help* anything. (Mom, p.111)

위 예문(55)에서 부사구 ‘그런다고’¹²⁾는 선행문맥에서 표현된 행동이나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동사 ‘그리다’에 연결어미 ‘-고’가 붙어서 앞 문맥에서 언급한 행동이 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지를 반문하고 있다. 즉 선행 문맥에서 표현된 사건이 방법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위자적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앞 문장을 언급하는 부사구인 ‘그런다고’가 행위자의 역할이 부여되어 영어 번역문의 ‘주어’로 격상되었는데, 영어에서는 앞문장이 언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단어로 명사화하여 ‘fighting’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한국어 문장의 BE 동사 ‘-이다’가 일반동사 ‘help’로 변경되면서 한국어 구문의 주어 ‘방도가’가 ‘anything’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부사구가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는 원인 제공하거나 조건의 의미로 행위자성이 있어서 주어로 격상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부사구가 물질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12) ‘그런다고’의 사전적 의미 : 자동사 ‘그리다’에 어미 ‘-ㄴ-’와 연결어미 ‘-고’가 붙은 말임. ‘그리다’는 ‘그리하다’가 줄여서 된 말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라는 뜻이다(예를 들면, ‘그리다가 늦겠다’). 또한 ‘-고’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뒤의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표현이다(예를 들면, ‘그렇게 사납게 굴고 어찌 무사하였을꼬?’). (동아 새국어 사전 제 5판)

3.3.1.3. 물질

한국어 구문의 부사구가 물질인 경우가 다음과 같이 3개 있었다.

- (56) a. 고소한 들기름 냄새에 자식들이 하나둘 눈을 뜨고 당신
앞으로 모여들었다. (엄마, p.154)
- b. The nutty smell of perilla oil *woke* **your children** one
by one, and they crowded around you. (Mom, p.127)

위 예문 (56a)에서 부사구인 ‘고소한 들기름 냄새에’가 영어 번역문의 무생물 주어로 격상되었다. 이 ‘들기름 냄새’는 자식들이 눈을 뜨게 하는 즉 가시적인 영향을 받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들기름 냄새’는 의도적으로 행위를 시작하지 않아 전형적인 행위자성과는 거리가 있지만 눈을 뜨게 된 데는 냄새의 자질 즉 고소함이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고소한 들기름 냄새’는 사건을 야기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부사구가 영어 번역문의 무생물 주어로 위치하였고, 한국어 문장의 인간 주어는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동작주로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였다.

- (57) a. 호미에 병아리가 *맞아*죽는 일도 이 마당에서 있었네.
(엄마, p.246)
- b. It was in this yard that [...]; the hoe *hit* a chick and
killed it. (Mom, p.205)

위 예문(57a)에서 부사구인 ‘호미에’가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인 ‘the hoe’로 격상되었다. 이 ‘호미’라는 도구로 인해 병아리가 맞고 죽는 가시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위 한국어 문장에서 이 ‘호미’를 사용하는 도구 사용자 즉 실질적인 행위자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숨은 행위자가 의도해서 호미를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 우연히 병아리가 지나가다가 호미에 부딪혔는지 여부가 위 예문(57)의 선행문맥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자연 병사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든 아닌 호미로 인해 병아리가 죽은 것이 특별한 사건이며, 그래서 병아리가 맞고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호미의 자질 즉 딱딱함과 날카로움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호미’에게 병아리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행위자의 역할을 하므로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격상되었고, 한국어 문장의 생물 주어는 피동작주로서 목적어로 번역되었다.¹³⁾

(58) a. 마음을 달래보려 노래를 부르며 풀도 뽑아주고 자리를 펴고 해가 저물 때까지 앉아 있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의 [= ∅ (어느 것에도, 아무 것에도)] 안 붙어라오. (엄마, p.252)

b. To try to change my mind, I would sing and pull weedsm sitting there until the sun set, but nothing made me feel comfortable there. (Mom, p.211)

13) 조인정(2005)에 의하면, 영어의 무정성 주어가 한국어에서는 ‘수단이나 도구의 부사구나 질’로 대응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역으로 예문(57)는 한국어의 도구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영어의 무생물 주어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예문(58a)에서 ‘안’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부사로서(김남미 2010) 서술어 ‘붙어 라오’를 부정하고 있고, 또한 이 예문은 마음이 붙는 대상물을 가리키는 표현 ‘어느 것에도’ 또는 ‘아무 것에도’가 생략되어 있다. 즉 선행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아무 것도 마음을 달래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어 표현으로는 ‘anything’이 생략된 것이다. 그리하여 생략된 부사어인 ‘아무것(anything)에도’와 ‘안(not)’이 결합하여 영어번역문에서는 ‘not anything’을 의미하는 nothing이 주어자리에 나타났다. 이 ‘anything’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는 원인 제공원으로서 행위자의 역할을 하므로, 영어 번역문의 주어에 위치하였다. 또한 이 ‘anything’로 인해 변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마음’이 피동작주로서 영어 목적어 자리에 나타났으나, 인간인 ‘me’로 대체되어 번역되었다. 이는 인간행위자를 억제하는 한국어와 달리 인간행위자를 부각시키는 영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Ikegami 1991).

지금까지 한국어 구문의 부사구가 물질인 경우 가시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도구이거나 원인 제공원으로서 행위자의 역할을 하여 영어 문장의 주어로 번역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부사구가 처소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3.3.1.4. 처소

한국어 구문의 부사구가 처소인 경우가 다음과 같이 8개 있었다. 부사구 모두 주어로 위치하였고, 한국어의 주어가 모두 목적어로 번역되었으며, 8개 문장 중 have 동사로 번역된 것이 5개가 있었다. 먼저 have 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 (59) a. 편지를 쓰다가 울었는지 편지지에 동그란 얼룩들이 저 있었다. (엄마, p.262)
- b. The letter *has* **round blotches** on it, as if she'd been crying as she wrote it. (Mom, p.220)

위 예문(59)에서는 서술어인 ‘저 있었다’가 ‘has’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영어에서 동사 ‘have’의 의미를 살펴보면 ‘get’, ‘obtain’ 등의 동작소유동사들이 지닌 의미 즉 소유하기 위한 행동의 의미는 탈색되고 소유하고 있는 결과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김신영 2002). 예문 (59a)가 의미하는 바를 보면 크기가 큰 장소 혹은 큰 공간(편지지)에 비교적 작은 사물들(얼룩들이)이 속해 있는 상태인데 편지가 마치 소유주로서 나타났다. 이런 소유주와 같은 편지는 얼룩들이 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행위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행위자로서 부사구인 ‘편지지에’가 영어의 주어로 나타나고, 소유주에 소속된 상태로 소유주의 영향 아래 있는 소유물인 ‘동그란 얼룩들’이 피동작주로서 목적어로 위치하여 타동구

문으로 번역되었다.¹⁴⁾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이다.

(60) a. 소매 끝이 다 닳은 네 셔츠엔 자뭇물이 방울방울 묻었고,
무릎이 병병하게 나온 바지는 솔기가 터져 있고, 언제 산
것인지 낡은 브래지어 끈엔 보푸라기가 무성하게 일어나
있고, 돌돌 말린 채 놓여 있는 팬티는 무늬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더구나. (엄마, p.214)

b. There were drops of plum juice on your shirt, which
had frayed sleeves, and the seam of your baggy pants
was ripped, and your old bra straps *had millions of
fuzzy bits* on them, and I couldn't tell what pattern
your rolled-up underwear used to have. (Mom, p.178)

위 예문(60)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처소인 ‘낡은 브래지어 끈’에 작은 사물인 ‘보푸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푸라기를 보유한 낡은 브래지어 끈은 소유주와 같은 행위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비록 행위자성은 낮으나 행위자로서 부사구인 ‘낡은 브래지어 끈’이 영어의 주어로 나타나고, 그 소유물인 ‘보푸라기’가 목적어로 위치하여 타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14) Ikegami(1991)에 의하면 영어 'Have-언어'인 반면 일본어는 'BE-언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김은일, 2009)에서는 한국어도 일본어처럼 'BE-언어'에 속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I have son'을 '나는 아들을 한명 가진다' 보다 '나는 아들이 한명 있다.'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 예문 (59)과 같은 한영번역에서는 역으로 한국어의 존재 동사를 영어에서는 'have'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 (61) a.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집은 옛집의 문짝 대신 거실을 비롯
한 모든 방에 유리창이 달려 있었다. (엄마, p.117)
- b. The house, newly rebuilt a few years ago, *has* **windows**
in every room, especially in the living room, unlike the
old house, which had one sole windowpane in the
door.(Mom, p.95)

위 예문(61)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처소인 집 내에 여러 유리창이 속
해 있다. 이런 지속적인 소유상태에서 무생물인 집이 마치 인간처럼
소유하고 있는 듯이 표현됨에 따라 집은 행위자성이 낮지만 영어
번역문의 주어로 나타나고 그 소유물인 유리창이 목적어로 위치하
였으며 영어 동사 'have'를 사용한 타동성이 낮은 타동구문으로 변
역되었다.

- (62) a. 한때 그가 살았던 방에는 굳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엄마, p.96)
- b. The door of the unit he used to live in *has* **a padlock**
on it. (Mom, p.77)

위 예문(62)은 자물쇠가 큰 공간인 방의 일부로 보고, 자물쇠가 속
해 있는 처소를 구체화시켜 'door(문)'으로 대체하여 번역하였다. 따
라서 '방'이 포함된 부사구가 주어로 번역되었고, 그 문의 소유물인
자물쇠가 목적어로 위치하였으며 역시 영어 동사 'have'를 사용한
타동성이 낮은 타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63) a. 오래 비워둔 집 문패엔 당신 이름만 새겨 있다. (엄마, p.140)

b. The nameplate of the long-empty house has only your name engraved on it. (Mom, p.115)

위 예문 (63a)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처소인 ‘문패’에 ‘당신 이름’이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행위자성은 낮으나 한국 문장의 부사구 자리에 있는 ‘문패’가 주어로 나타나고 그 문패에 포함된 ‘당신 이름’이 목적어로 위치하면서 ‘have’ 동사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주어로 격상된 8개의 경우 중 3개는 영어 번역문에서 ‘have’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일반 동사를 사용하였다. 이 역시 한국어의 주어가 모두 영어의 목적어로 번역된 특징이 있다.

(64) a. [=∅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은 일도... (엄마, p.55)

b. When the persimmon tree *didn't bear fruit*; (Mom, p.42)

위 예문(64a)에서는 부사구 ‘감나무에’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 ‘감나무’는 ‘감’이 속해 있는 보다 큰 처소이며, 따라서 소유주로서 행위자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부사구인 ‘감나무’는 주어로 나타났고, 소유주가 가진 ‘감’은 영어의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65) a. 아내는 가족사진을 다시 찍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번에

찍은 **가족사진**에 작은 딸이 미국에서 낳아온 아이가 빠졌
다며. (엄마, p.150)

- b. Another time, your wife reminded you that you needed to have a new family picture taken, because the most recent portrait *didn't include your younger daughter's third baby*, who was born in America. (Mom, p.123)

위 예문(65)을 살펴보면, 큰 처소인 ‘가족사진’에 작은 처소인 ‘아이’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참여자 사이에 일종의 소유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가족사진’이 소유자와 같은 행위자성이 부여되어 영어 번역문의 주어로 나타났고, 소유물인 ‘아이’가 목적어로 번역되었으며, 동사가 ‘include’로 번역되어 이런 소유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이다.

- (66) a. **제사상**에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홍어가 나오기는 처음이었다. (엄마, p.55)
b.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ancestral-rite table *had seen a skate* with its skin on. (Mom, p.41)

위 예문(66a)에서도 큰 처소인 ‘제사상’에 작은 처소인 ‘홍어’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이 두 참여자 사이에 소유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주에 해당하는 ‘제사상’이 행위자로서 영어 번역문의 주어로 나타났고, 소유물에 해당하는 ‘홍어’가 목적어로 번역되었으며, 동사는 타동성이 낮은 ‘see’로 변경되어 번역되어 마치 ‘제사

상'이 소유하고 있던 '홍어'를 내어놓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부사구가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큰 공간(또는 처소)에 작은 공간(또는 처소)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 큰 공간과 작은 공간 사이에 소유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았고, 이로 인해 부사구로 나타난 큰 공간이 소유주로서 행위자적인 역할이 부여되어 주어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목적어가 주어로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3.3.2. 목적어가 주어로 변경되는 경우

목적어가 주어로 변경되는 경우는 1개가 있었으며 다음 예문과 같이 목적어가 유사행위자인 자연이어서 주어로 격상되었다.

- (67) a. 너는 석양빛을 받으며,... (엄마, p.34)
b. With the setting sun warming your back, you gazed down... (Mom, p.23)

위 예문(67)과 같이 한국어에서 무생물 목적어 '석양빛을'이 영어번역문에서 무생물 주어 'the setting sun'로 격상되었다. '석양빛'은 무생물로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시작할 수 없으나 따뜻하게(warm)을 만드는 에너지를 지닌다. 그래서 '석양빛'의 '빛'이 영어 번역문에

서 에너지를 가진 태양 ‘sun’으로 번역됨으로써 사건을 주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인간 행위자보다 덜 전형적인 행위자로서 영어의 주어자리로 번역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양빛으로부터 영향을 입는 대상인 ‘너’는 피동작주(patient)로서 영어의 목적어로 번역되었지만,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를 구체화시켜 ‘your back’로 번역되었고, 동사를 ‘받으며’에서 ‘warm’으로 변경하였다.¹⁵⁾

3.3.3. 두 절이 하나의 절로 변경되는 경우

두 절이 하나의 절로 변경된 경우가 5개 발견되었는데, 모두 절내 유사행위자인 무생물 주어가 주어로 위치하였고, 유사행위자에는 에너지를 가진 자연인 경우 2개와 신체 일부인 경우가 2개, 기관인 경우가 1개 있었다.

15) 김은일 외(2009)에 의하면, 무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를 가진 영어 타동사 구문에서 인간참여자가 소유주로 나타나는 경우, 영한 번역시 유생성이 높은 소유주가 한국어 구문의 주어로 격상되어 번역되었다. 한영 번역에서는 역으로 인간주어가 영어번역문의 인간참여자를 암시하는 소유주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3.3.3.1. 유사 행위자

A. 자연

한국어 문장의 두 절의 주어 중 변화를 주도하는 주어가 영어 타동사 문장의 무생물 주어로 선택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2개가 발견되었다.

- (68) a. 눈 내리는 겨울 밤에 바람이 불면 마당에 쌓인 눈이 마루까지 들어치기도 했네. (엄마, p.246)
- b. During snowy winter nights, the wind *would blow* the **snow** piled in the yard onto the porch. (Mom, p.205)

위 예문(68a)에서 ‘바람이 불다’와 ‘마당에 쌓인 눈이 마루까지 들어치기도 했네’라는 2개의 절이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면’으로 연결되었다. 앞 절의 주어 ‘바람’은 자연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눈을 움직이므로 행위자로서 영어 번역문의 주어에 나타났고, 동사에 의해 가시적인 영향을 받은 후절의 주어 ‘눈’은 영어의 목적어로 번역되었으며, 바람이 시작하는 행위인 앞절의 동사 ‘불다’가 영어 번역문의 동사로 나타났다.

- (69) a. ...잎이 떨어져 수북이 쌓여 있어 신발 밑이 푹신푹신했다. (엄마, p.58)

- b. The thick layers of oak leaves on the ground cushioned your feet. (Mom, p.44)

위 예문(69a)에서 ‘잎이 쌓여 있다’와 ‘신발 밑이 폭신폭신타다’라는 2개의 절이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어)서’로 연결되었다. 앞 절의 주어 ‘잎’은 바닥에 쌓여서 신발과 바닥의 마찰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잎’은 에너지를 가진 행위자로서 영어 번역문의 주어에 나타났고, ‘잎’에 의해 가시적인 영향을 받은 후절의 주어 ‘신발 밑’은 발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인 ‘feet’로 변경되어 목적어로 나타났으며, 잎이 야기하는 사건인 후절의 동사 ‘폭신폭신타다’가 영어 번역문의 동사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장의 두 절이 영어에서는 하나의 절로 통합되면서 두 절의 주어 중 변화를 야기하는 주어가 영어의 주어로, 영향을 받는 주어가 영어의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한국어 문장의 무생물 주어가 신체의 일부인 경우를 살펴보겠다.

B. 신체일부

한국어 문장이 두 절로 이루어진 경우 절 내 주어가 신체의 일부를 나타낸 경우가 2개 있었다.

- (70) a. 짙은 눈썹이 일자로 뻗어 있는 게 정직해 보였소이. (엄마, p.227)

- b. Your thick, straight eyebrows *made* **you** look honest.
(Mom, p.189)

위 예문(70)에서 ‘길은 눈썹이 일자로 뻗어 있다’와 주어가 생략된 ‘정직하게 보이다’라는 두 개의 절이 연결되었는데, 앞 절이 의존명사 ‘거’와 주격조가 ‘이’를 사용하여 명사절 형태로 주절에 나타났으며, 후절이 서술절에 나타났다. 앞 절은 눈썹의 특정한 생김새를 말하는데, 신체의 일부로 유생성이 높고 인간을 정직한 이미지로 만드는 행위자적인 역할을 하여 영어 번역문의 주어 자리에 나타났다. 그래서 동사는 사역동사 ‘made’로 변경되어, 정직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인간인 ‘you’가 피동작주로서 목적어로 새로이 나타났다.

- (71) a. 입매도 단정해서 믿을성 있어 보였고. (엄마, p.227)

- b. Your mouth *made* **you** seem respectable and trustworthy. (Mom, p.189)

위 예문(71)에서는 ‘입매도 단정하다’와 ‘믿을성이 있어 보이다’라는 두 개의 절이 종속적 연결어미 ‘-(어)서’로 연결되었는데, 앞 절은 입매의 특정한 생김새를 의미하고, 신체의 일부로 유생성이 높고, 인간을 믿음직한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행위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어 번역문의 주어 자리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 입매로 인해 이미지에 영향을 받은 인간이 피동작주로서 영어 번역문의 목적어로 나타났으며, 동사가 사역동사 ‘make’로 변경되어 번역되었다.

위와 같이 두 절로 이루어진 한국어 문장이 영어에서는 하나의 절로 번역되는 경우 절 내 주어가 다른 절의 주어에 영향을 끼치는 신체의 일부가 영어 문장의 주어로 선택되었다.

C. 기관

두 절로 이루어진 한국어 문장에서 절 내 주어가 기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1개 있었다.

- (72) a. 매년 추석 때면 올해는 유난히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많은 것이 뉴스가 되는 사회다. (엄마, p.113)
- b. The media reports every time that this year more people were going abroad during the holiday than ever before. (Mom, p.92)

위 예문(72a)은 ‘올해는 유난히 해외로 나가는 이들이 많다’는 문장이 의존명사 ‘것’과 함께 명사절이 되어 주어에 있고, ‘뉴스가 되는 사회다’가 서술절로 표현되었다. 이때 (72a)에는 어떤 사실이 이슈임을 알리는 행위자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행위자는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들인데, 사실 이 매체 자체가 소식을 전달하기보다 매체들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매체를 수단으로 하여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는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므로 유생성이 높고 행위자로서 볼 수 있으므로 숨은 행위자 ‘the media’를 새로운 주어로 영어 번역문에 나타내었으며 동사를 BE-동사에서 일반동사 ‘report’로

변경하고 뉴스의 내용인 앞 절을 목적어로 번역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장의 두 절이 영어에서는 하나의 절로 변경된
경우 절 내 유사행위자가 주어에 위치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IV. 결론

지금까지 영문판 번역서인 『*Please Look After Mom*』에서 발췌한 무생물 주어와 사용된 타동사 구문 64개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원문 표현 64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생성과 타동성이 한영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문장의 주어가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가 36개(56.3%)로 변경되는 경우 28개(43.7%)보다 많았다.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어의 의미가 유사행위자, 사건, 심리, 물질인 경우가 있었다. 먼저 주어가 유사행위자인 경우 자연, 신체일부, 병, 기관을 대표하는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주어가 자연인 경우는 자연이 에너지를 가지고 사건을 야기하여 인간보다 덜 전형적인 행위자로서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 자리에 나타났다. 신체의 일부는 인간이 조종할 수 있으므로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높아져 영어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주어가 질병인 경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을 표현함으로써 유생성이 높고 인간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로서 행위자성이 발견됨으로써 영어 번역문의 주어로 유지되었다. 또한 기관을 대표하는 인간은 영어 번역문에서 기관으로 대체되어 번역되었는데 이때 기관은 기관에 근무하는 인간 행위자를 암시함에 따라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높아 인간을 대신하여 주어에 번역될 수 있었다. 다음은 주어가 사건인 경우 사건이 인

간에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자로서 행위자의 역할을 하여 영어 번역문에 주어로 유지되었다. 또한 주어가 심리인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심리 역시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유생성이 높고 인간에 내외적으로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자성이 발견되어 주어 자리를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어가 물질인 경우 물질이 사건을 야기할 힘을 가지거나, 타동성이 낮아서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둘째,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는 총 28개로 부사구가 주어로 변경된 경우가 총 28개 중 22개(78.6%)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목적어가 주어로 변경된 경우가 1개(3.6%), 두절이 하나의 절로 변경되는 경우가 5개(17.8%)가 있었다. 먼저 부사구가 주어로 변경된 경우, 부사구가 유사행위자이거나, 인간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 및 물질이거나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었기 때문이었다. 유사행위자로는 자연, 신체일부, 병,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는 기관이 있었다. 부사구가 유사행위자, 사건, 물질 모두 행위자성이 있어서 영어 번역문에 주어로 격상되었다. 특히 부사구가 처소의 의미인 경우, 이 처소가 문장 내 다른 참여자 사이에 큰 공간에 속해 있는 소유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처소가 일종의 소유주인 행위자로서 주어로 격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목적어가 주어로 변경되는 경우 목적어가 유사행위자인 자연으로서 주어로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 두절이 하나의 절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사행위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주어가 영어 번역문의 주어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국어 문장에서 유생성과 행위자성이 높은 무생물이 영어 타동사 구문의 무생물 주어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는 한국어 문장의 동사를 변경하여 번역함으로써 주

어로 선택된 무생물의 행위자성을 뒷받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영어로 말하거나 작문할 때 이런 한국어와 영어의 유생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행위자성이 있는 무생물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다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남미. 2010. 「친절한 국어 문법」. 서울: 사피엔스.
- 김명애. 2008. 「영어 생물주어와 무생물주어의 한국어 번역유형 비교」.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김신영. 2002. 「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난 타동성의 부호화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김은일. 1998. 영어 구사력 향상을 위한 한·영 구조에 나타난 유생성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영어교육연구」 9, 145-164.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6.
- 김은일. 2001. 유생성 부호화의 유형론: 한국어·일어·영어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1, 37-57.
- 김은일, 김명애, 정연창. 2009. 유생성이 영한 번역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 16(1), 23-40.
- 김은일. 2010. 「부호화체계와 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 신애. 2011. 「유생성에 따른 영어 타동사 구문의 한국어 번역 유형」.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우형식. 1992. 국어 타동구문의 구조 분석(1): 구성 성분의 통합관계를 중심으로. 「외대논총」 10, 385-419.
- 조인정. 200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부정성 주어와 타동사 구문. 「한국어교육」 16(3), 331-352.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and Linguistic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se, D. A. 1973. Some Thoughts on Agen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9, 11-23.
- Dixon, R. M. W. 1979. Ergativity. *Language* 55, 59-138.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ume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2002. 「기능영문법 I & II」. 서울: 박이정)
- Givón, T. 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ume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inds, J. 1983. Topic Continuity in Japanese. In T. Givón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 Cognitive Approach to Corpus Linguistics*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46).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